

한국-바른미래, 운영위 靑 태도 지적... “오만함 극에 달해”

황교안 “정무수석, 야당 원내대표 질의에 난데없이 고향 질러”

유승민 “오만하고 무식한 청와대가 운영위서 국회 상대로 싸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4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등 청와대 인사들의 태도 등을 두고 “청와대의 오만함이 극에 달했다”며 강 수석의 사퇴 및 국회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한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강 수석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질의 과정에서 나 원내대표를 향해 고성을 질렀고, 결국 야당의원과 청와대 인사들이 충돌

을 빚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핵심 인사들의 상황 인식과 오만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안보실장은 북한의 패륜적 도발에 대해 (문 대통령 모친상) 장례를 마치고 했다는 등 북한 대변인이나 할 망발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운영위에서는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야당 원내대표가 질의하는데 난데없이 끼어들어 고향을 지르고 호통을 치는 일이

있었다”며 “청와대의 오만함이 극에 달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현 청와대의 실상은 무능과 무책임, 무지와 궤변 그 자체였음에도 오만과 교만에 극에 달한 모습이었다”며 “특히 국정감사 종료 직전 자행된 강 수석의 의도적인 국회와 야당 모독은 청와대가 국회와 야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준 단적인 사례”라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는 결국 절

저히 국회를 무시하며 국민 갈라치기로 국정은 운영해온 데다, 국회나 야당의 관계 개선은 고려하지 않고 내년 총선에 대비해 경력이나 쌓아줄 생각에 강 수석을 임명한 문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오만하고 무식한 청와대가 운영위 회의장에서 일부러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상대로 싸움 거는 것을 보면서 국정을 책임지는 집단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문제되는 인사들, 정무수석을 당장 해임하고 국회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집권 절반이 지난 대통령이 조국 사태를 겪은 지 얼마



원유철 자유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위위원장과 위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안보라인 인사들이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무지하고 무능한 모습을 보였다며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안 된 대통령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비서실장, 안보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국가안보실장, 경제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경제수석

이런 사람이 대통령을 보좌한다고 청와대에 앉아 있는 것 보고 기가 막혔다”고 강조했다.

뉴스1



손학규·유승민 바른미래당 분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왼쪽)와 유승민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163차 최고위원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비상회의를 각각 갖고 있다.

홍준표, 황교안 겨냥 “내부총질 운운, 당원 협박하는 협량정치”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4일 황교안 대표를 겨냥해 “내부 총질 운운하는 것은 당원들에게 협박이나 하는 협량 정치에 불과하다”고 강력 비판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문재인식 정치’와 다를 바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며 이렇게 밝혔다.

황 대표는 지난 2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공수처 저지 및 국회의원 정수 축소 촉구’ 보고대회에

서 “싸우다 보면 이길 수도, 실수할 수도 있는데 내부 총질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과 자신을 향한 비판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홍 전 대표는 “거듭 말하지만 총선 때까지 이 당에서 내 역할은 없고 또다시 이용만 당하는 그런 역할을 할 생각도 전혀 없다”며 “내년 총선까지 내 선거만 할 것이다. 총선 이후 야권이 대 통합할 때 내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작년 지방선거

를 앞둔 증차대한 시점에 지금 원내대표인 나경원 의원이나 일부 친박들이 한패가 돼 내가 말한 위장평화, 경제폭망 등을 막말로 몰아붙이면서 보수의 품격을 운운하는 등 속직 지독한 내부 총질을 했다”며 “그런데 1년 지난 지금 그 말이 막말이더냐”고 울분을 쏟아냈다.

홍 전 대표는 “나아가 나더러 지 원유세 조차도 못 하게 막았다”며 “그래도 나는 그들을 비난하거나 반박하지 않았다”고 했다.

대안신당, 신당 명칭·색상 결정... “김대중 상징 진녹색”

“공모 거쳐 최종 압축”... “진녹색, 정통 의미”

민주평화당 탈당 의원 모임인 대안신당(가칭·이하 대안신당)은 4일 신당의 명칭을 ‘대안신당’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당의 당색(色)은 고(故) 김대중 대통령을 상징하는 녹색 계열인 ‘진녹색’으로 선택했다.

김정현 대안신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의원·창당준비위원장 연석회의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그는 “신당 명칭 공모 절차를 거쳐 최종 압축된 ‘대안신당’과 ‘대안정당’을 놓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신당의 색깔은 로열블루, 보라색, 진녹색 등이 제시됐으며 이중 진녹색을 채택했다”고 전했다.

오는 17일 오후로 예정된 발기인대회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계층의 참여와 내실 있는 진행을 방침으로 해나가기로 했다”며 “서울·경기·부산·광주·전남·전북·경북 등의 창당발기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당명 채택, 발기취지문 채택, 창당준비위원

회 규약 채택, 창당준비위원장 선출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창당을 위한 지역별 준비모임은 서울·부산·경기·광주 등이 완료됐으며 4일 경북지역 창당준비모임, 10일 전남지역 창당준비모임이 열린다”고 덧붙였다.

지난 8월 평화당 탈당 이후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결성을 거친 대안신당은 17일 발기인대회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창당 수순을 밟을 계획이다. 소속된 현역 국회의원은 임시대표인 유성엽·전정배·박지원·장병완·윤영일·최경환·김종희·정인화·이용주·장정숙 총 10명이다. 당 슬로건으로는 ‘우리가 대안이다’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창당준비위원회의 홍승태 총무간사는 연석회의의 직후 기자회견과 만나 “창당준비위원회 단계까지 당명은 ‘가칭 대안신당’을 쓸 예정이며, 당색(色)은 진녹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녹색은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색”이라며 “우리가 정통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성엽 임시대표는 이날 야권 곳곳에서 나오는 제3세대 신당 창당 움직임과 관련해 “‘해체모여식 신당’이 제일 현실적이고 가능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연석회의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어디 (특정 세력) 중심으로 신당이 된다는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지 말아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누구를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발언은 내달 초로 예상되는 바른미래당의 분당을 놓고, 일각에서 바른미래당 당권파를 중심으로 한 제3세대 신당 창당 전망이 나오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

유 임시대표는 “너무 자기중심을 고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원활하게 제3세대 신당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라며 “무계중심을 외부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새로운 신진인사들에 뒤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1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